

|  |                                    |
|--|------------------------------------|
| 오전 11시   | 인도 : 최세열목사                         |
| ◆경배와 찬양의 예배◆   |                                    |
| ※ 입례송 .....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 ※ 예배부름 .....   | 인도자                                |
| ※ 예배기원 .....   | 인도자                                |
| ※ 경배찬송 .....   |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
| ※ 교독문 .....  | 20(시편 33편)..... 다 같이               |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다 같이                   |
| 찬송 .....   | 90장(주 예수 내가 알기전)..... 다 같이         |
| 예배기도 .....   | 1부 안복선집사 2부 김애자권사                  |
| 응답송 .....  | 찬양대                                |
| 이달의찬양  | ...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 다 같이 |
|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 다 같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되게 하옵소서.</li> <li>*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li> <li>*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li> </ul> |                                    |
| ◆말씀 듣는 예배◆   |                                    |
| 성경봉독 .....   | 마태복음 9:10-13..... 한옥자권사            |
| 찬양 .....   | 임마누엘찬양대                            |
| 말씀선포   |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코이노니아(2)> 최세열목사     |
| 기도 .....   | 설교자                                |
| ◆응답하는 예배◆  |                                    |
| 찬송 .....   | 85장(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 같이          |
| 봉헌 .....   | (루디아회)..... 다 같이                   |
| 봉헌기도 .....   | 담임목사                               |
| 친교와소식 .....  | 말은이                                |
| ※ 찬송 .....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 ※ 축도 .....   | 최세열목사                              |
| ※ 축복송 .....  | 찬양대                                |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
|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                                    |

| 찬양예배 / 오후2시      |                | 수요예배 오후7:30분      | 새벽기도회(월-금)                   |
|------------------|----------------|-------------------|------------------------------|
| 인도 / 최세열목사       | 인도 / 최세열목사     | 새벽 5:00           |                              |
| 찬양 / 다함께         | 찬양 / 다함께       | 인도 : 담임목사         |                              |
| 기도 / 말은이         | 기도 / 한마음기도     | (마태복음강해)          |                              |
| 본문 / 딤편 3:14-16  | 본문 / 디도서2:1-15 | <b>금요기도회</b>      |                              |
| 말씀 / 최세열목사       | 말씀 / 최세열목사     | 연합구역예배            |                              |
| 바울 묵회자 7스피릿      | “각 계층에게        | 25일 오후 8시         |                              |
| 제1과정 목적이 분명한 묵회자 | 주는 교훈”         |                   |                              |
| 주기도문 / 다함께       | 주기도문 / 다같이     |                   |                              |
| 예배위원             | 안내위원           |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 다음주<br>1부 강은순전도사<br>2부 박홍만장로 |
|                  | 현금위원           | 7월 김기희 신공님 허웅 김귀례 | 다음주<br>1부 인도자<br>2부 김혜경권사    |
|                  | 식당봉사           | 금주 루디아A 다음주 루디아B  |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
|                  | 헌신찬양           | 금주 루디아회           | 다음주 오복실권사<br>4구역             |

###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코이노니아2 /마태복음 9:10-13

우리의 영적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교제 속에서 그 의미가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행적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 1. 주님은 거룩한 교제를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코이노니아, 거룩한 교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어 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주님께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은 사람들과의 거룩한 교제였습니다(빌2:6-8). 주님은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셨습니다(눅4:18,19, 요19:10,고후8:9).

#### 2. 주님은 사역을 통해 거룩한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첫째, 식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오늘날 문에서처럼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심은 단순히 밥을 먹는 일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공동식사는 용서와 화해와 상실되었던 인간권리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은 이들과 식사를 하심으로 그들의 인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형제로 인정하고 교제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룩한 백성들의 식탁공동체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만찬을 통해 식탁교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최후만찬에서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심의 교제를 선포하셨습니다. 식탁교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치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교제입니다. 히4:15절은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동정이란 같은 감정을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치유사건은 바로 이 동정함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 마음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시며 거룩한 교제로 초청하십니다.

셋째, 약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교제의 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권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어린이와 여성들, 세리와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계3:20).

#### 3.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사 53:5, 고후5:21).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골1:24).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교제의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성도들 사이에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강림후 일곱째주일(7월 20일)

### 제 30 과 사람답게 사는 길(스가랴 5:1-4절)

(함께 읽을 말씀 : 마태복음 5:33-37,야고보서 5:1-6)

#### 말씀묵상

1. 일전에 어떤 여자 분이 내게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여자'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 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칠순을 넘기신 할머니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때마다 불공을 드리고 절에 큰일이 있을 때면 누구 못지않게 많은 시주를 하기도 하는 불자입니다. 그런 그분이 목사인 내게 편지를 주며 당신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아들은 최고 명문대를 나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일까요? 그 아들이 불치병이라도 걸린 것일까요? 무슨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 출사표라도 던진 것일까요? 불자이면서 교분이 그리 두텁지도 않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편지에 적힌 기도의 내용은 너무도 의외였습니다. "내 아들이 보통 사람으로서 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보통 사람으로 자기 길을 가는 것!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도 싱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너무도 지당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2. 스가라는 한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스가라는 이제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재건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루마리가 보인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에는 이제 세워야 할 새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두루마리는 길이가 스무 규빗(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손가락까지), 폭이 열 규빗이나 됩니다. 대략 어림잡아 길이가 10미터, 폭이 5미터나 되는 거대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한쪽에는 '모든 도둑질하는 자는 땅 위에서 말끔히 사라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는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사라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과 도둑질로 이룬 삶에 대한 심판(얌면)과 허위와 사기로 이룬 종교에 대한 저주(뒤틀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면 도둑질과 거짓이 모두 말끔히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실이 무능력과 퇴보로 여겨지고 거짓이 능력과 진보로 신봉되는 곳에 희망은 없습니다. 도둑질이 명예로 숭상되는 사회와 거짓 맹세가 영력으로 숭배되는 종교는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3. 우리의 세상에서도 도둑질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길은 없습니다. 도둑은 교도소에 있다고요? 거기에는 오히려 작은 도둑들이 있다지요. 천문학적인 돈을 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온갖 부정과 불법과 공작으로 권력을 도둑질하면 처벌받던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교회에서 도둑질과 거짓이 사라져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참 사람답게 자기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짓과 허위의 위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평신도 참여 예배로서 루디아회가 함께 했습니다. 루디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7월 권사회 기도회가 오후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3. 어린이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년회 수련회가 7월 31일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연합구역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25일) 오후 8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연합구역예배를 시작으로 구역예배를 몇 주 동안 쉬겠습니다. 금요기도회도 함께 합니다. 각자 기도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최세열 조성순 김선주 원혜경 함경숙 방옥남 박지영 안해숙 오복실 곽현석 김기수 신혜영 김선영 김연학 김장숙 김영란B
- 감사헌금 : 강신동 김동현 김지환 최세열 조성순 김영숙 양희임 무명 (생일) 서영자 이용훈 (심방) 최승만 심복례 (일천번제)김동현
- 맥추감사 : 우기남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방옥남 함경숙 허 웅 김순님 신공님 이성래 이영란 이정아 이 현 이철희 안해숙 이유자 마리아회
- 비전씨앗 : 양석임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 구역 | 인도자 | 구역장 | 모인곳 | 인원 | 헌 금    | 성경  | 모일곳 | 구역 | 인도자 | 구역장 | 모인곳 | 인원 | 헌 금     | 성경  | 모일곳 |
|----|-----|-----|-----|----|--------|-----|-----|----|-----|-----|-----|----|---------|-----|-----|
| 1  | 박홍만 | 김금자 | 심복례 | 6  | 23,000 | 10  | 교 회 | 7  | 강은순 | 이영선 | 김홍영 | 6  | 14,000  | 70  | 교 회 |
| 2  | 정정희 | 김한순 | 심문자 | 4  | 22,000 |     | 교 회 | 8  | 김순님 | 오복실 | 오복실 | 4  | 20,000  | 80  | 교 회 |
| 3  | 이준호 | 함경숙 | 박정일 | 4  | 18,000 | 200 | 교 회 | 9  | 김인순 | 이영란 | 박치국 | 3  | 15,000  | 150 | 교 회 |
| 4  | 김기희 | 최경선 | 주종임 | 4  | 14,000 |     | 교 회 | 10 | 장영분 | 노순영 |     |    |         |     | 교 회 |
| 5  | 이문순 | 원혜경 | 윤종원 | 5  | 20,000 |     | 교 회 | 계  |     |     |     | 40 | 171,000 | 680 |     |
| 6  | 류종란 | 김애자 | 류종란 | 4  | 25,000 | 170 | 교 회 |    |     |     |     |    |         |     |     |

**예배시간안내**

| 구 분    | 요 일 | 시 간      | 장 소  | 구 분   | 요 일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배 | 주 일 | 오전9시,11시 | 본 당  | 금요기도회 | 금요일 | 오후 9시   | 소예배실  |
| 찬 양 예배 | 주 일 | 오후 2시    | 본 당  | 어린이예배 | 주 일 | 오전11시   | 종합교육실 |
| 수요기도회  | 수요일 | 오후 7:30  | 소예배실 | 청소년예배 | 주 일 | 오전11시   | 소예배실  |
| 새벽기도회  | 월-금 | 오전 5시    | 소예배실 | 청년부   | 주 일 | 오후 2:30 | 사 무 실 |

**예수님과의 관계**

헨리 나우웬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인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모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선행도, 예배도, 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매순간 살아가며, 잠자리에 들 때에 그의 품안에서 쉬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부자이건 어떤 권력가이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갱 안에 들어 갈 수는 있다**

그리스도인인 젊은 부인이 자신의 유희가 출입을 변호하면서 그를 염려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 물론 네 말이 틀리진 않아. 그런데 내가 작년 여름 친구들과 탄광을 견학한 일이 있었다. 그 날 한 젊은 여자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 내가 그에게 그런 옷차림으로는 견학이 힘들겠다고 충고를 했더니 그는 안내인에게 묻는 거야.

'흰옷을 입고 갱 안에 들어 갈 수 없냐'고.

그 때 안내인은 이렇게 대답했어.

'됩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고 갱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갱 안에서 흰옷을 입고 나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더러워진 사람들과 사귀를 원할 때 흰옷을 입었다고 방해하는 것은 없지만, 그 후 계속 흰옷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것이지."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29

2014.7.20.

**7월의 기도 3**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 자신의 불의를 회개하나이다.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말씀의 법과 규례를 소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생명으로 온 세상을 살리신 주님,  
이 땅에 가득한 죽음의 문화를 회개하나이다.  
안전불감증에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삶에 지쳐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이웃을 외면하고,  
내 생명, 내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  
여전히 갈라진 남과 북을 회개하나이다.  
가장 잔인했던 전쟁을 벌이고,  
여전히 끝내지 못한 전쟁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은 증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의 삶에 불같이 오소서.  
저희의 삶에 바람같이 오소서.  
저희의 삶에 성령으로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늘 저희와 함께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교회 행사**

1. 평신도 참여예배 - 7월 20일 - 루디아회
2. 해든술선교활동 - 7월 12일(토) 오전 8:30
3. 어린이부성경학교 -6월29, 7월 6,13일 - 7월19,20일
4. 청년회 수련회 - 7월 31일(목)
5. 청소년부수련회 - 8월 4일-6일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영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